

“코로나19 브리핑 시, 수화통역 일관된 기준 없어”

“해외 한국 대응 칭찬 무색하게 장애인에 대한 대처 미흡”

“1339 상담원, 장애인 응대 불가능...전문 상담원 배치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초기에 제공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정부에 재난시 장애인에 대해서도 섬세한 메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감염병 안전 대책을 촘촘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한국이 대응을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칭찬이 무색하게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며 “1월 중순 정부가 코로나19 브리핑을 할 때 수화통역이 없어서 우리 단체가 차별진정해 수어통역이 실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청와대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뒤늦은 수어통역 때문만은 아니며 장애인들이 질병과 관련한 정

보를 얻을 곳도 마땅치 않고 질병에 노출됐을 때 누구에게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절차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에 장애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방송통신발전기법과 재난법, 장애인방송규칙 등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수화통역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관련 상황정보를 전달할 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의무로 제공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도 해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나 중간 중간 통역화면이 사라지는 등 방송사들의 수어통역방역 기준이 없다”며 “재난의 경우 장애인에 맞는 정보 제공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중이나 감염병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도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1339 상담원 중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 등에 대한 응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이나 질병 관



련 공식 브리핑에서 모든 방송사가 방송화면 비율을 발표자와 수어통역사가 1 대 1로 등장하고 △1339 등에 장애인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고 △재난상황 전문통역인과 의료 수어통역 통역사를 양성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

어설명 영상이 나와야 하며 △정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메뉴얼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장애인의 상황을 잘 아는 지역복지기관이나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통역사 지원 등 지역 전문 자원을 활용하라고도 제안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시각장애 수험생이 점판과 점판을 이용해 답안작성 연습을 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수화통역, 속기 등을 제공하는 전문도우미가 확대되고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2020~2022)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수는 2006년 4045명에서 2010년

5213명, 2015년 8598명, 2019년 96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결과 37.5%인 158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23.9%(101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은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

양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기존 전문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60명을 지원했지만 2022년까지 200명으로 늘린다. 전문도우미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도액도 지난해 156만원에서 올해는 186만2000원으로 30만2000원 인상했다.

편의 제공도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위한 정보가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대학 내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64.6%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올해 66.7%, 2022년 72.3%로 확대한 뒤 2033년까지는 2층 이상 모든 국립대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특수교육센터 공간혁신 이룬다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광양서초등학교 내)가 지난 14일 특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결과를 공유하고자 광양교육지원청 교직원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광양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환경으로서의 공간 혁신을 꾀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실무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과 동부권(광양, 여수, 여수여명) 직업전환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업전환실을 구축하고 노후화 시설을 보수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양교육지원청 주무관은 “직업전환실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구성돼 있고, 무엇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자 교육장은 “광양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광양교육 가족 모두가 힘을 보탰다.”며 “공간혁신의 실현은 이제 시작이다. 장애학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